이대목동병원 유재두 병원장이 6일 열린 개원 2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비뇨기·여성암병원 통해 새 도약"

이대목동병원 개원 28주년 기념식

의료원 공식 유튜브 채널서 생중계
임상센터 확충 등 4가지 전략 발표

이대목동병원이 6일 개원 28주년 기념식을 갖고, 국내 최초 '이대비뇨기병원'의 성공적 개원과 '이대여성암병원' 확장을 통해 병원발전을 도모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개원기념식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교직원들이 이대목동병원의 영웅이자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내년 이대비뇨기병원 개원 및 이대여성암병원 확장이라는 두 날개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 개원 예정인 이대비뇨기병원은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설립되는 비뇨기 전문 병원이다. 국내 유일의 인공방광 수술 전문 센터인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는 2015년 개원 후 1천례 가까운 인공방광 수술을 성공했고 차별화 된 인공방광 수술법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이대비뇨기병원은 인공방광센터의 노하우를 살려, 국내 최고의 고난도 비뇨기 수술을 선도하는 허브병원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기념식에서는 이선영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이대목동병원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이선영 본부장은 ▲이대비뇨기병원 개원 ▲이대여성암병원 도약 ▲임상시험센터 확충 ▲김옥길홀 재탄생 등 이대목동병원 4가지 핵심전략을 밝혔다.

/이세경 기자

강스템바이오텍-서울대 약학대학 먹는 코로나 치료제 공동개발 추진

김상희 교수팀 연구계약 체결
기존 선도물질 최적화 진행
"항바이러스 기술 확보할 것"

강스템바이오텍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강스템바이오텍은 7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김상희 교수 연구팀과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정식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가 유일하지만, 주사제로서 중증환자의 치료기간 단축을 위하여 처방되고 있어, 명확한 항바이러스효능을 나타내는 치료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대형제약사들에서 경구용 약물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MSD가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FDA에 신청했다.

이번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한 김상희 교수 연구팀은 천연물 유래 물질 유도체를 기반으로한 합성 연구 플랫폼 및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병원체 SARS-CoV-2 virus를 포함한 RNA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항바이러스 효능을 나타내는 경구용 치료제 선도물질을 발굴하여 특허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이 후보물질은 렘데시비르 대비 631배 더 강력한 약리활성을 가지며, 효과적이고 안전함을 나타내는 선택지수는 렘데시비르 대비 6.7배 더 높은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경구투여 치료제라는 것 또한 유리한 점이다.

이번 공동연구계약 체결을 통해, 강스템바이오텍의 임상수행역량과 서울대 약대 연구팀의 저분자 화합물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선도물질에 대한 최적화 과정을 통해, 국내 고유의 기술력을 이용한 경구용 코로나19치료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의 나종천 대표이사는, "줄기세포의 사이토카인스톰 제어 능력을 이용한 중증 코로나19 세포치료제 개발과 함께, 항바이러스 치료제 기술을 동시 확보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료기술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美 법원, 메디톡스의 '대웅 특허소송' 기각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 일단락

대웅제약 "법적 근거 없다는 사실 확인
국내 소송에서도 승소 할 수 있을 것"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기각되면서 미국에서 이어져 오던 보톨리눔 톡신 소송 전쟁이 일단락 됐다.

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9월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만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5월14일 버지니아 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도 대웅의 톡신 치료시장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지난 6월21일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하며,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최근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됐고 인용만 남은 상태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기각은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메디톡스가 미국 내 소송전을 더 이상 끌고갈 동력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캘리포니아 소송건은 이번 버지니아 소송에 관련된 특허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합의 대상 역시 대웅제약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 법원에서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국내 호텔 3곳, 아시아 호텔 '탑 10' 진입

'시그니엘 서울' 토종 브랜드 유일 선정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시그니엘 서울도 호텔 아시아 부문에서 5위로 선정됐다. 아시아 30개 호텔 순위 가운데 유일한 국내 토종 브랜드다.

'여행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의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됐다. 국내에 위치한 호텔은 세곳이 아시아권 등 순위에 랭크되며 위상을 높였다.

우선 포시즌스 호텔 서울이 호텔 중 국내에서는 1위, 아시아에서는 4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단, 해당 아시아 부문은 중국과 일본, 인도, 방콕, 싱가포르를 제외한 전체 아시아 국가에 한한다.

올해 개관 6주년을 맞이한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약 60년간 축적된 포시즌스 브랜드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수상에 주효했다.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시그니엘 서울도 호텔 아시아 부문에서 5위로 선정돼 전 세계 유수의 특급호텔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선정된 아시아 30개 호텔 중 국내 토종 브랜드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그니엘 서울은 지난해에도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글로벌 트래블러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호텔로 공인 받은 바 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도 아시아권 부문 호텔 30곳 중 7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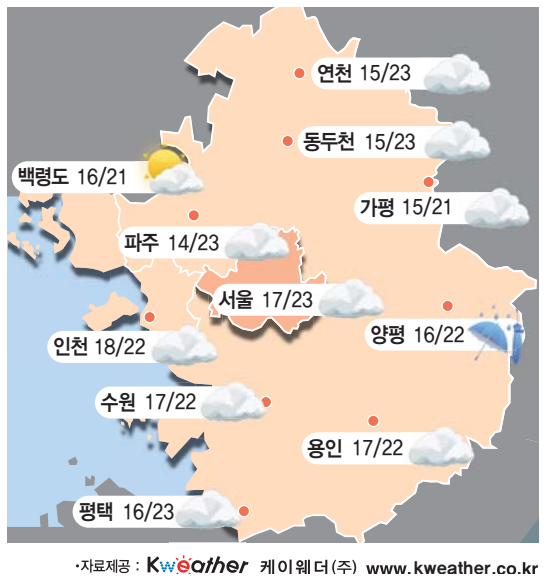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오늘의 날씨 해뜸 / 06:34 | 해짐 / 18:05

10월 8일 (金)
음력 : 9월 3일

수도권 날씨 17 ~ 2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동아제약 '미니막스' IBA 리브랜드 부문 은상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고평가

동아제약의 프리미엄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미니막스가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비즈니스 어워즈 IBA에서 '올해의 리브랜딩/브랜드 리노베이션'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IBA는 미국 '스티비 어워즈' 사가 주최하는 국제대회로 올해 18회를 맞았다. 전세계의 공공 및 민간, 영리 및 비영리 개인 및 조직이 참가하며 2021년에는 63개국에서 3700개 이상의 작품이 출품됐다.

업계 최초로 은상을 수상한 미니막스는 대한민국 최초로 발매된 어린이 영양제 브랜드로, '최소한의 변화(Min i)로 최대의 효과(Max)'를 만든다는 고유의 빼기성장법을 철학으로 삼아 지난 20년 5월부터 리브랜딩을 진행했다.

동아제약 어린이 건강연구센터의 'MMX Solution(최소성분 최대효과)' 원칙으로 제품을 설계했으며, 친환경 3R 콘셉트의 토이백 패키지로 사회적 가치 창출도 고려했다.

또, ▲인스타그램 ▲네이버 쇼핑 라이브 ▲키즈 모델 이벤트 ▲AR필터 빼기성장 챌린지 ▲대규모 인플루언서, 맘카페 제휴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고객들과 친밀한 소통을 전개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세경 기자

동아제약

박카스D 공급가 12.2% ↑

동아제약이 오는 11월1일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박카스 D(사진)의 공급가격을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박카스D의 가격 인상은 지난 2015년 4월 1일 이후 6년 7개월 만으로, 인상 폭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12.2%다.

이번 가격인상은 그동안 약국과 고객의 부담을 감안하여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지만, 인건비와 물류비 등 제반경비의 지속된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결정됐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앞으로 제품 품질개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